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더 많은 리포트 찾아보기



투자전략 | 2026.09.18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Weekly



Analyst 신얼 | 투자전략 02-3779-3184, e.shin@sangsanginib.com

Analyst 김경태 | 글로벌 전략/디지털자산 02-3779-3427, kt.kim@sangsanginib.com

Analyst 최예찬 | 경제/원자재/외환 02-3779-3519, yc.choi@sangsanginib.com

Analyst 강혜성 | 시황 02-3779-3475, hs.kang@sangsanginib.com

CONTENTS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Summary	3
1. 경제	7
2. 주식	9
3. 채권	19
4. 부동산	22

Summary

주간 자산시장 동향 & 체크포인트

만장일치 25bp 인상, 금리 완화 사이클 종료의 확인

9월 3주차 금융시장

금리 인상, 고유가, 고금리 국면
AI 속도조절 논란
그럼에도 버티는 주식시장

9월 3주차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이 3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오히려 장기금리는 급등을 멈추고 하락했다. 인상 자체는 직전 주에 이미 70% 수준까지 반영된 사건이었던 만큼, 시장이 새로 받아들인 것은 인상 여부가 아니라 연준이 완화 사이클을 끝내고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 서한이 겹치면서, 금주 증시를 움직인 것은 할인율이 아니라 인공지능 투자의 집행 시점에 대한 재평가였다. 금리가 방향을 정한 자리에서 시장의 질문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에서 「그 금리로 조달해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로 옮겨 온 한 주로 판단한다.

12대 0 만장일치 25bp 인상, 연내 추가 1회 인상 가능성 거론

9월 15~16일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3.503.75%에서 3.75~4.00%로 25bp 인상을 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고, 2023년 7월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점도표의 2026년 말 중간값은 기존 3.8%에서 4.1%로 30bp 상향돼 연내 추가 1회 인상에 해당하고, 2027년 말도 4.1%로 유지된 뒤 2028년 3.9%, 2029년 3.6%로 이어진다. 추가 인상 이후 1년간 동결하고 그 뒤 완만히 내리는 경로이며,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되는 구도다. 경제전망에서는 성장률과 물가가 함께 상향되고 실업률만 2026~2027년 모두 4.3%에서 4.1%로 하향됐으며, 2028년 PCE 전망이 2.1%로 높아지면서 물가 목표 도달 시점이 2029년으로 1년 이연됐다. 워시 의장은 “시장에 동조된 결정이 아니라 연준 자체 판단”임을 명시하며 독립성을 강조했다. 포워드 가이드는 내놓지 않았다. 경기 대응을 위한 보험성 인상이 아니라 남아 있던 완화적 금융 여건을 제거하는 정책 전환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장기금리는 4.95%로 반락, 조여진 것은 커브의 앞단

인상 당일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5.01%로 2007년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으나 이튿날 4.95%로 반락했고, 30년물도 5.35%에서 5.30%로 되돌려졌다. 점도표가 2027년 말까지 4.1%를 유지하며 인상 경로의 상단을 함께 드러냈기 때문이다. 반면 워시 의장이 현재 금융 여건을 제약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2년물은 4.70%를 상회해 2024년 7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장기 구간의 상단이 가시화된 대신 앞단이 조여진 형태이며, 추가 긴축의 부담은 만기가 짧은 쪽에 실렸다. 국내에서도 대외 금리 급등이 전이되며 약세가 이어졌고, 한미 금리차는 상단 기준 1.00%p로 벌어졌다. 총재가 8월 연속 인상의 근거로 환율과 한미 금리차를 제시한 만큼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부담은 한층 확대됐다.

AI 속도 조절 논쟁이 변경한 것은 투 자 규모가 아니라 집행 시점

주식 시장은 어려운 매크로 악재와 AI 속도조절론이 다시금 약세를 주도했다. 12일 엔스로픽 최고경영자가 모델 성능 개선 속도를 낮추자는 서한을 공개하고 오픈AI와 xAI가 동조하면서 14일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5.9% 하락했다. 국내 증시는 주 초반 반도체 강세 이후 매크로 압력이 우세해지며 KOSPI가 2.18% 하락한 6,715.41pt, KOSDAQ이 0.76% 상승한 822.18pt로 마감했다.

100달러대 유가와 중간선거 D-46, 재정과 물가로 이어지는 연결

10일과 11일 이라크에서 발진한 드론이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을 타격하면서 사우디가 송유관 가동과 안부 항 선적을 중단했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에서 대체 수출로까지 막히며 브렌트유는 15일 108달러 부근까지 상승한 뒤 104.08달러로, 서부텍사스산원유는 101.15달러로 마감했다. 8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2%, 근원이 1.4% 증가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주유소 매출이 3.1% 증가해, 유가 상승분이 이미 소비 지출에 계상되기 시작했다. 중간선거를 46일 앞둔 정치 일정도 같은 경로에 놓여 있다. 1950년 이후 전쟁 중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은 예외 없이 의석을 잃었으며, 겔프전처럼 군사적으로 승리한 경우에도 유가 급등과 경기침체가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전비 지출에 에너지 공급 차질이 더해져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약화되면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는 함께 멀어진다.

9월 4주차 금융시장: 추석 연휴 뒤 해외 뉴스 종합 반영

9월 4주차 국내 금융시장은 추석 연휴로 24~25일 휴장해 거래일이 사흘에 그친다. 정작 방향을 정할 해외 일정은 대부분 휴장 기간에 집중돼, 연휴가 끝난 뒤 한 번에 반영해야 하는 구조다. 금주 FOMC가 방향을 확정한 만큼 차주의 초점은 결정 자체가 아니라 그 결정을 소화한 뒤 장기금리와 인공지능 투자가 어떤 조합을 만드는지에 있다.

국내 21일 수출과 22일 금융안정, 10월 금통위의 사전 재료

미국은 23일부터 25일까지 2년·5년·7년물 입찰을 연달아 치른다. 10년물이 5%에 걸린 국면이라 입찰 소화 결과가 미 금리의 방향을 결정한다. FOMC 직전 동결을 지지해 완화적 견해를 보인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세 차례 연설에 나서고, 9월 속보에서 4.6%까지 상승한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25일 확정치로 확인된다. 23일에는 9월 제조업·서비스업 PMI 속보치가 공개되는데, 세부 항목 가운데 지불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대 유가의 판가 전가 정도를 가장 이르게 보여준다. 이들 일정이 국내 휴장과 겹치는 만큼, 휴장을 앞둔 포지션 축소가 주 후반에 나타날 수 있다.

체크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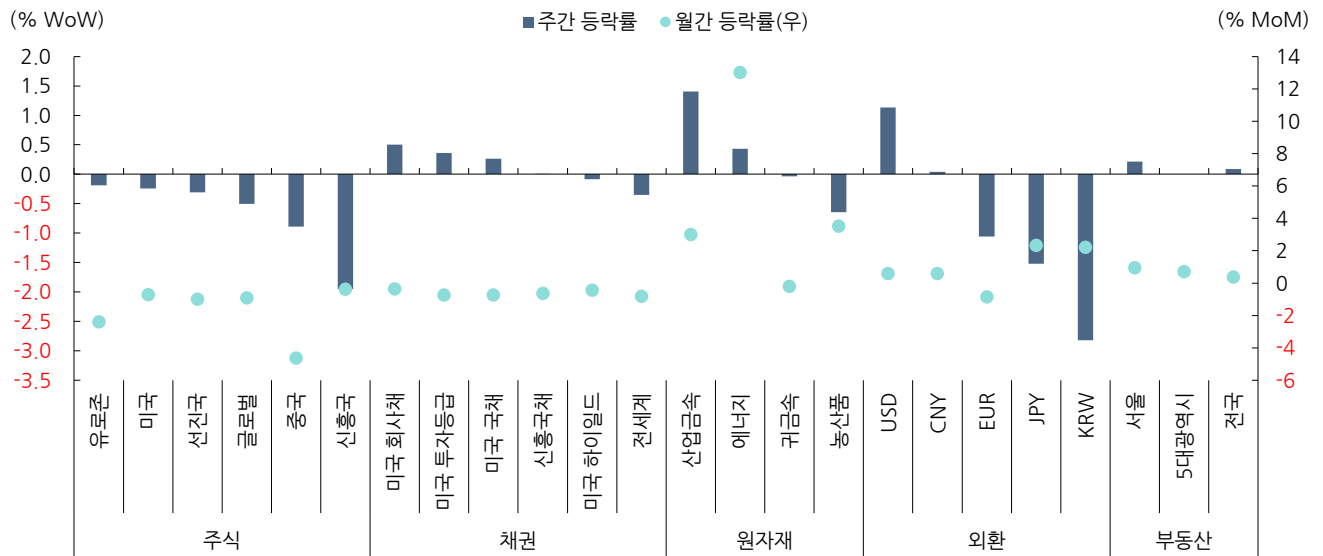
- 1) 21일 수출 지표
- 2) 22일 금융안정 상황
- 3) 8월 내구재 주문 지표

국내 증시는 조정을 거치며 낮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이 하단을 지지하는 국면이다. 변동성 지수가 78월 80%를 웃돌던 극단 구간에서 4050%대로 후퇴했고, 거래대금도 100조원을 넘던 시기의 40%인 40조원까지 축소된 뒤 50조원대를 회복했다. 비IT 업종은 1~8월 영업이익 전망치가 연초 대비 16.8% 상향된 반면 업종지수가 4.1% 하락해 괴리가 남아 있다. 불확실성이 이벤트 직전에 정점을 지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FOMC를 넘긴 뒤 전약후강의 전개를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에서는 세제개편 효과가 본격화되며 무게중심이 증저가로 이동했다. 강북 14개구의 매매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상회했고 서울 평균 전셋값도 7억원을 넘어선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6주 연속, 송파구는 2주 연속 하락하며 강남3구가 동반 약세를 시현했다. 매물이 한 달 새 6% 가까이 축소되면서 임차 수요가 용인·인천 등 수도권으로 분산되는 흐름이다.

높은 금리는 시장에 반영되는 중; 실적 가시성과 현금흐름에 주목

연준이 방향을 정한 이상 할인율의 하단은 당분간 열리지 않는다. 남은 검증 대상은 금리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그 금리로 조달해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지이며, 이는 인공지능 투자를 어느 위치에서 수취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지출 이연에 직접 노출되는 전공정 장비와 외부 조달로 설비를 증설하는 인프라보다, 이미 배치된 설비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로직·메모리와 예산 규모 자체가 확대되는 보안·소프트웨어의 여건이 낫다. 국내에서는 조정 이후 낮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이 하단을 지지하는 가운데, 연휴로 거래일이 사흘에 그치는 만큼 일방향 포지션 확대보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과 현금성 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편이 유리하다. 금리 급등 구간에서 중단기 채권을 단계적으로 편입해 기대수익률을 확보하는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연휴 뒤 한꺼번에 반응해야 할 변수가 많은 주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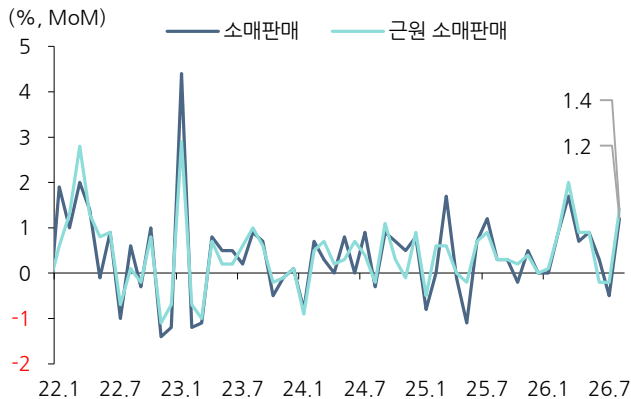
그림 1. 자산별 주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부동산원,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경제지표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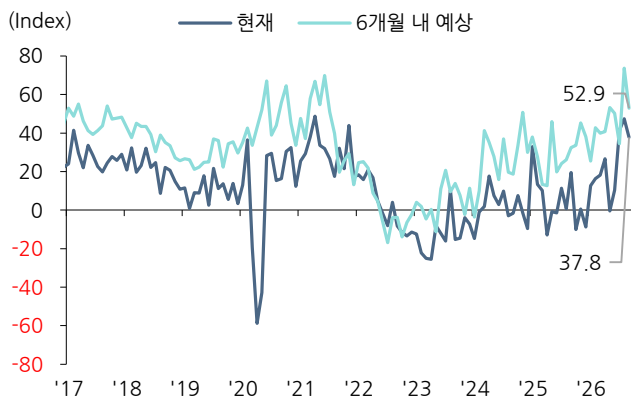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8월 소매판매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발표한 8월 소매판매는 MoM +1.2%, 근원 소매판매는 MoM +1.4%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각각 +0.8%, +0.6%)를 대폭 상회
- 주유소(+3.1%)와 비점포 소매(+2.6%), 전자·가전(+1.6%), 외식업(+1.2%)이 상승을 견인한 반면 백화점(-0.8%)과 건축자재(-0.2%)는 감소
- 고물가 여건에도 신학기 수요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력이 재확인. 강한 소비 흐름이 물가 압력을 자극할 수 있어 연준의 긴축 기조 지속 가능성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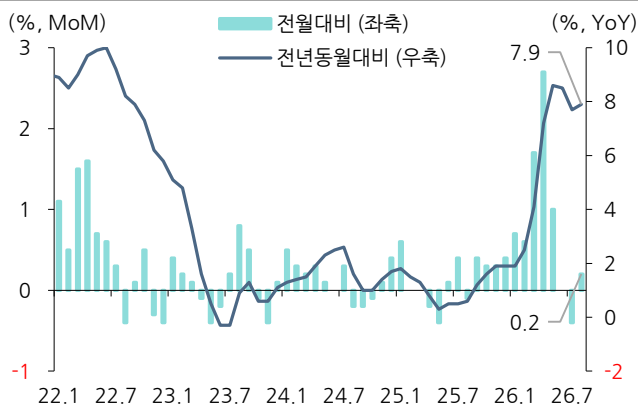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된 9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활동지수는 37.8로 전월(47.4) 대비 하락했으나 예상치(32.1)를 상회하며 확장세를 유지
- 신규주문(29.2)과 출하(27.7)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고용(11.8)은 16p 하락. 투입가격(48.6)과 출하가격(31.3)이 각각 8p, 14p 급등하며 가격 상승 압력이 가중됨
- 제조업의 견조한 실물 흐름 이어지고 있으나, 6개월 내 기대지수(52.9)가 큰 폭 하락 한 점과 에너지발 비용 부담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

그림 3. 한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MoM +0.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YoY로는 7.9%로 전월(7.7%) 대비 오름폭이 확대
- 폭염으로 농산물(+4.9%)과 축산물(+2.8%)이 올라 농림수산물(+3.8%)이 상승을 주도. 산업용 도시가스(+11.0%) 인상에 전력·가스·수도(+0.9%)도 상승
- 식료품및에너지외 지수가 보합에 그쳐 기초적 압력은 제한적. 다만 농산물 및 에너지발 비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

1. 경제

중간선거 D-46, 역사적으로 전쟁 이후 중간선거는?

미국 내 중간선거가 46일 남은 상황이다. 현 상황의 주요 특징은 전쟁이 진행중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미국이 전쟁 중일 때 중간선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1950년부터 전쟁 이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고전하고 이후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경우가 반복됐다. ①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트루먼 행정부는 그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의석 29석과 상원 의석 6석을 잃었고, 1952년 대선에서는 공화당 아이젠하워에게 정권을 넘겼다. ②1964년 베트남전 지상군 투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 린든 B. 존슨 행정부도 196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47석과 상원 4석을 잃었으며, 1968년 대선에서는 공화당 닉슨이 승리했다. ③2003년 이라크전 개전 이후 전쟁이 장기화된 부시 행정부 역시 200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 30석과 상원 6석을 잃으며 양원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고, 2008년에는 민주당 오바마로 정권이 교체됐다. 세 사례 모두 집권당이 양원을 장악한 단점정부에서 시작한 전쟁이라는 점에서 2026년과 구도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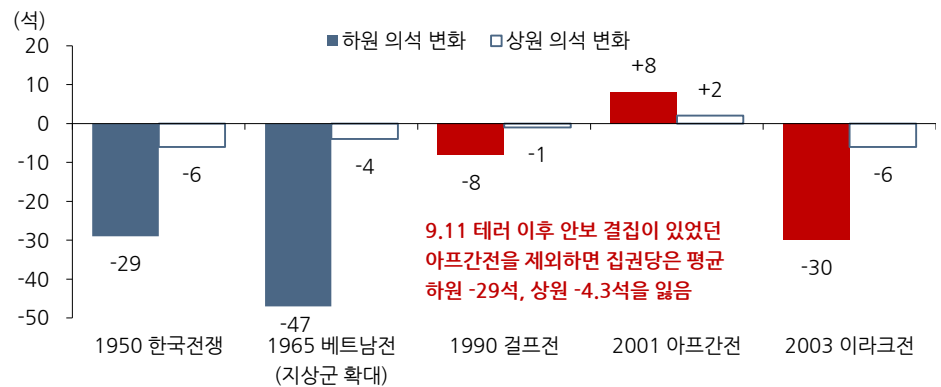
전쟁에서 이겨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전에서 병력 전개 중에 치러진 199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 8석과 상원 1석을 잃는 데 그쳤고, 1991년 1~2월의 지상전은 6주 만에 끝났으며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꺾임 기준 89%까지 올랐다. 전쟁 비용의 대부분도 동맹국이 분담해 재정 부담은 작았다. 그럼에도 부시는 1992년 대선에서 클린턴에게 패했다. 침공 직후 유가가 배럴당 17달러에서 36달러로 두 배가 되면서 1990년 7월부터 1991년 3월까지 경기침체가 이어졌고, 실업률은 종전 뒤에도 올라 1992년 6월 7.8%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생활 경제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다만 한 번의 예외가 있는데, 이는 외부의 공격에 대한 대응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경우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90%까지 상승했고, 이듬해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하원 8석과 상원 2석을 추가하며 민주당이 쥐고 있던 상원을 되찾았다. 부시는 이라크전 초기인 2004년 대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이는 전쟁의 정치적 영향이 일률적이지 않으며, 본토 피격에 따른 안보 결집과 전쟁 수행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26년 미·이란 전쟁은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으로 시작됐으며, 9·11과 같은 미국 본토의 대규모 피격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전쟁과는 출발점이 다르다. 따라서 2002년과 같은 광범위한 안보 결집을 이번 선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중간선거는 한국전쟁·베트남전·이라크전에서 나타났던 해외 군사개입의 성과와 비용에 대한 평가가 부각되는 구도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다. 전쟁의 개전 경위는 서로 다르지만, 군사적 목표 달성이 지연될수록 전비와 인명 피해가 국내 정치의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전쟁 당시에는 군사비 확대와 물가 불안이, 베트남전 당시에는 전비와 사회정책 지출의 동반 확대가 정책 부담을 키웠고, 걸프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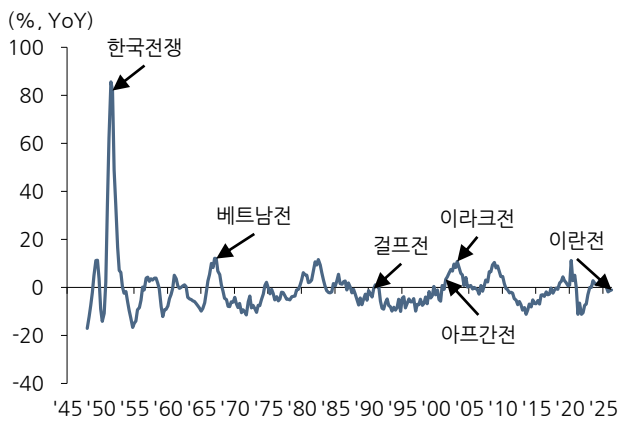
전쟁 자체보다 유가 충격과 경기침체가 정권의 운명을 갈랐다. 국방 지출은 단기적으로 성장과 일부 산업의 수요를 지지할 수 있으나,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까지 상쇄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도 전비 지출에 에너지 공급 차질이 더해지면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약화되고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조기 종전과 뚜렷한 성과가 생활경제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전쟁은 집권 공화당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기보다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의 부담을 가중할 전망이다.

그림 1. 전쟁 이후 중간선거에서의 의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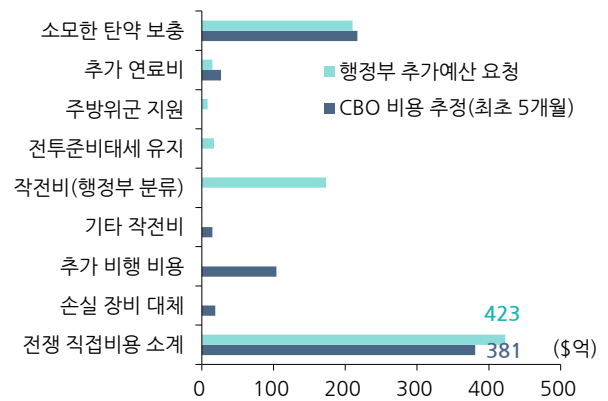
자료: APP,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국 내 GDP 대비 국방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FRED,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26년 이란전 최초 5개월간의 비용 추정과 행정부 추가예산 요청



자료: 필자 직접 추정,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2. 주식

국내 증시 리뷰: 갈피를 못잡는 투심

주 초반 미 FOMC 금리 인상 전망과 유가 100\$ 돌파가 증시 약세 야기

9/17일 기준 KOSPI는 전주대비 -2.18% 하락한 6,715.41pt를 기록하였다. KOSDAQ은 전주대비 +0.76% 상승한 822.18pt를 기록하였다. 금주 국내 증시는 미 9월 FOMC를 앞두고 높아진 매크로 민감도에 따른 약세 흐름이 증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비 반도체 중심의 순환장세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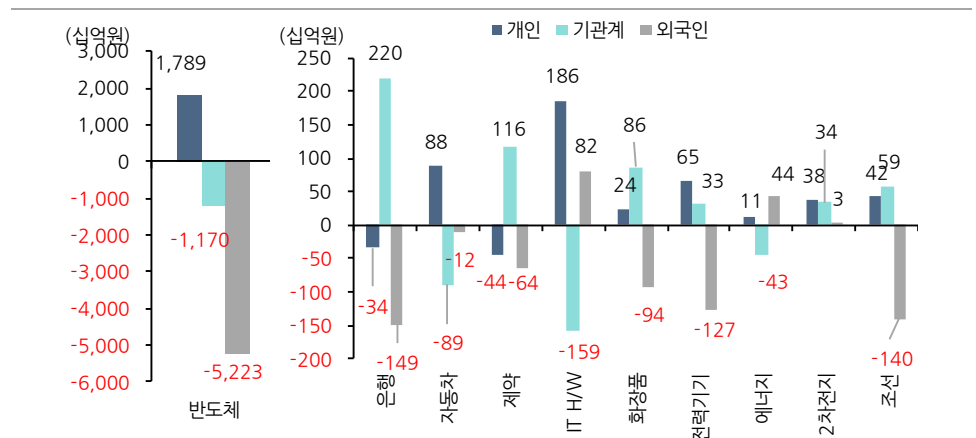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경제지표였던 미 8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한 YoY +3.4%로 집계된 가운데 Core CPI가 전월기준으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MoM +0.3%(예상치 +0.2%)를 기록하자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부터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소멸되었다. 결과적으로 5:5수준까지 내려왔던 동결 또는 인상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view는 인상으로 가닥이 잡히며 주 초반 국내 증시에도 약세압력으로 작용했다. 거기에 더해 사우디 송유관을 통한 우회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고, 생산량 감소 우려가 확산되자 유가가 100\$을 재돌파한 점도 약세장의 요인이 되었다.

AI 속도조절론 대두되었으나, 반등에 성공한 글로벌 반도체주

글로벌 증시에서 AI 속도조절론이 확산된 점도 반도체주 투심을 약화시켰으나, SK하이닉스가 인텔과 미국 내 메모리 생산 논의 중이라는 재료에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은 한 주였다. 글로벌 반도체주 역시 주 초반 약세 흐름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국내 요인에서는 역시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및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물량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다만, 외국인 투심이 개선되지 못하고 관망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은 지수 차원에서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업종별 수익률에서는 화장품/의류(+1.2%), 자본재(+0.5%), 은행(+0.4%)가 상승하였고, 유틸리티(-5.8%), 자동차(-5.1%), 에너지(-4.6%) 순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고른 약세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수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화장품이 조정 이후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그 외 테마적으로는 전력기기, 조선(엔진), 반도체 장비 등이 중반에 강세흐름을 보였다.

그림 1. 국내 증시 주간 업종별 순매수 비교 (9/17일 기준)



자료: Quantiwise, 상승인증권 리서치센터

예상치에 부합한 금리 결정,
다만 시장이 예상한 강세는
한 박자 늦게 발현

결국 긍정적이지 못한
매크로 변수들, 결국 민감도
감소가 유일한 기대 요인

국내 증시 차주 전망: 확실한 매수 요인은 여전히 부족하다

차주에는 국내 증시가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가운데 보합~상승 사이의 레벨 속에서 다소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 가장 큰 산이었던 미 9월 FOMC에서는 시장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을 하며 어느정도 안도 밸리 발현이 기대되었으나, 케빈 워시 기자회견에서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 만큼 덜 매파적이지는 않은 입장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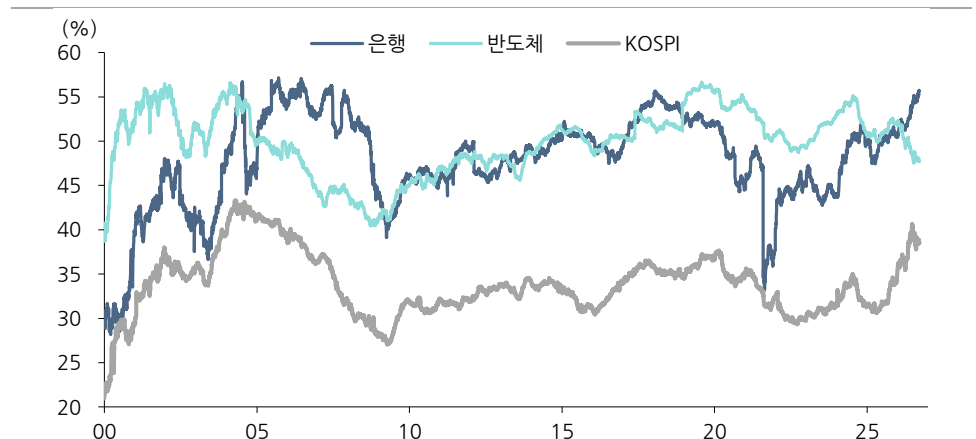
결국 점도표 상 향후 최소 1회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내 증시 역시 이벤트 소멸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목요일 장세였다. 다만, 미국 증시가 당일 꽤나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은 금주 마지막 영업일 국내 증시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9/17일 미국 증시 S&P500은 전일대비 +1.14% 상승한 7,637.73pt를 기록하였고, 나스닥은 +1.69%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14% 상승 마감하였다.

이러한 점은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도 이벤트 해소 격의 강세흐름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국 구조적으로 높게 자리하는 10년물 미 국채금리 및 글로벌 유가, 향후 금리 경로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중기적으로 증시의 강세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 결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발언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강세 시나리오를 그리기 위해서는 11/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상, 하원 장악이 선결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매크로 장세 속에서 Bull 시나리오는 난관이 많으나, 점차 그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음은 금년 3월 발발한 중동전쟁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결국 연말 시나리오 상에서 매크로 민감도가 다소 낮아지고 기업 실적, 배당 등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일 것이다. 다만, 그 시기까지 가는 데에는 여전히 악재가 많은 상황이다. 반도체에 대한 개인 투심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방을 제한하는 것도 우려 요인이다. 개인투자자 예상 매물대로 추정되는 6천 후반~7,500pt 내에서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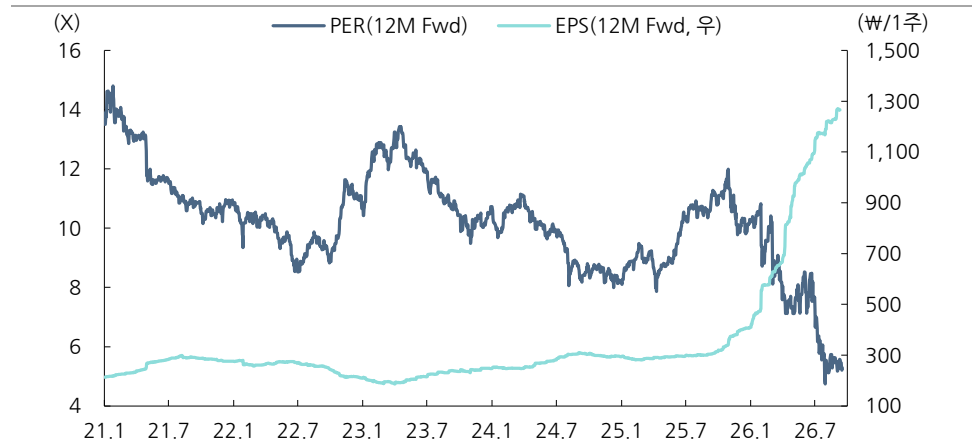
한편, 외국인투자자 매수세가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업종 기준으로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은 2022년 이후 은행주를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겠다.

그림 2. KOSPI 및 섹터별 외국인지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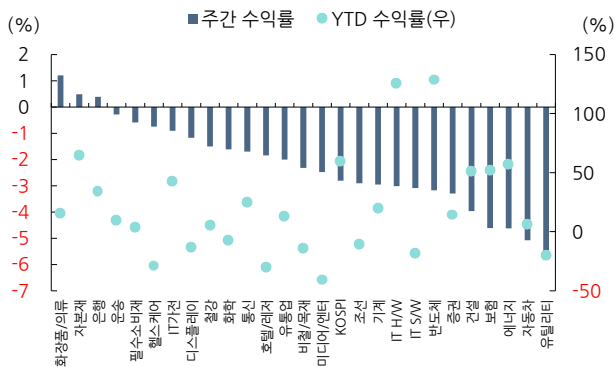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KOSPI 12M Fwd PER, 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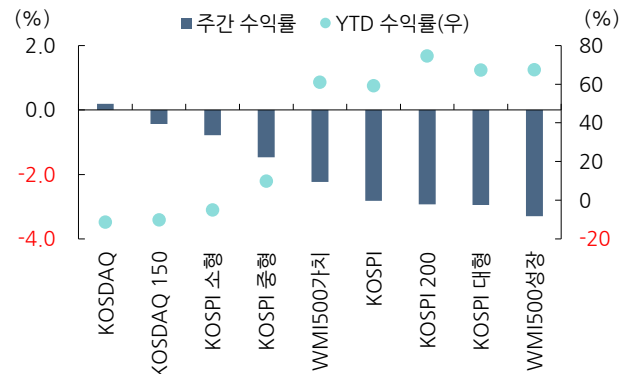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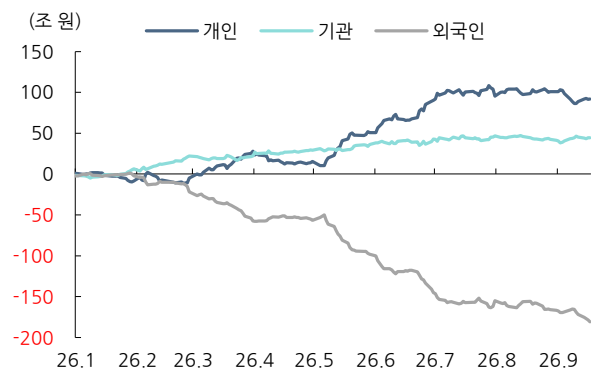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KOSPI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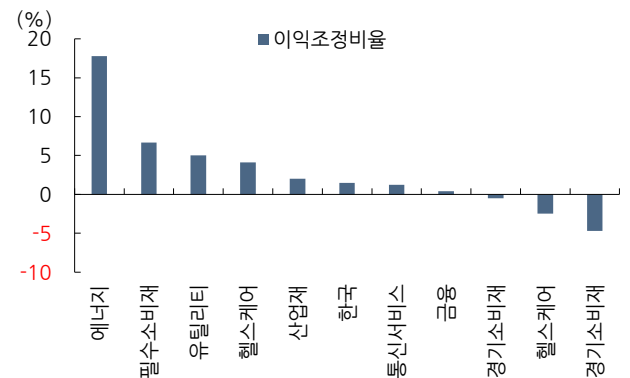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국내 증시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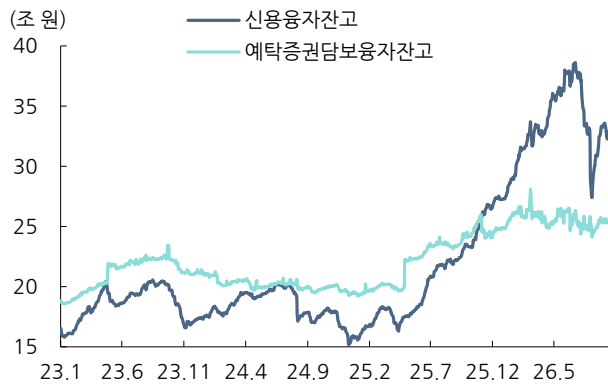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한국 증시 업종별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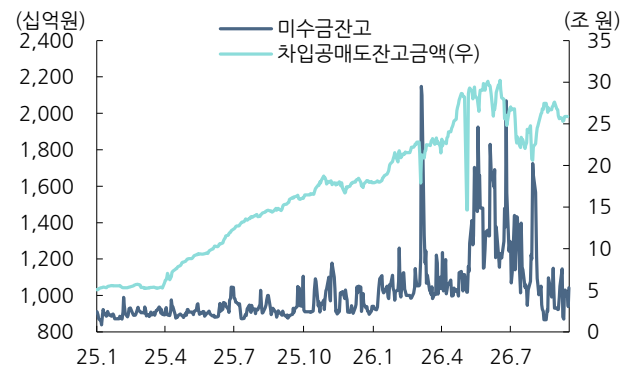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한국 증시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증권담보융자잔고 추이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한국 증시 미수금잔고 및 차입공매도잔고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미국 증시 Review: AI 속도 조절 논쟁과 금리 인상

3년 만의 인상, 러셀 2000은 4주
연속 하락

금주 미국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3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9/17 종가 기준 S&P500은 -0.3%(7,637.76), 나스닥은 +0.3%(26,418.30), Dow Jones는 -1.5%(51,778.04)를 기록했고, 러셀 2000은 1.0% 하락한 2,874.63으로 마감해 금리에 민감한 중소형주의 부진이 4주째 이어졌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4일 5.9% 하락한 뒤 17일 3.1% 반등해 주간으로는 1.9% 하락한 11,599.49에 머물렀다. 16일 5.01%로 2007년 이후 최고치에 도달한 10년 국채금리가 17일 4.95%로 반락하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4.97%에서 소폭 낮아졌고, 30년물도 5.35%에서 5.30%로 되돌려졌으며 변동성지수는 15.84에서 15.44로 후퇴했다.

점도표 연말 4.1%→연내 1회 추가
인상
8월 소매판매 1.2%로 예상 상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5~16일 회의에서 12대 0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해 3.75~4.00%로 결정했고, 2023년 7월 이후 첫 인상이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의 2026년 말 중간값은 4.1%로, 참가자 18명 가운데 16명이 연내 추가 인상을 예상했고 그 가운데 4명은 두 차례를 열어 뒀으며, PCE 물가 전망은 3.7%로, 근원은 6월의 3.3%에서 3.4%로 상향됐다.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물가의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16일 다우가 631포인트 하락했다. 11일 공개된 8월 CPI(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4%·전년 대비 3.4%로 컨센서스에 부합했으나 근원의 전월 상승률이 0.3%로 예상치 0.2%를 웃돌았고, 16일 8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2%로 예상치 0.8%를 상회한 가운데 주유소 매출이 3.1% 증가했다.

사우디 동서 송유관 피격에 브렌트
108달러 상회
아모데이 서한에 반도체 하루 5.9%
하락

10일과 11일 이라크에서 발진한 드론이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을 타격하면서 사우디가 송유관 가동과 안부 항 선적을 중단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에서 일 500만 배럴 규모의 대체 수출로까지 막히며 브렌트유가 15일 108달러 부근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반락해 17일 104.08달러로, 서부텍사스산원유는 101.15달러로 마감했다. 12일에는 앤스로픽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가 모델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서한을 공개하고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xAI의 일론 머스크가 동조하면서 14일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5.9% 하락했고, 낙폭이 전공정 장비에 집중돼 주간 기준 램서치가 9.7%,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8.6%, KLA가 6.5% 하락했다. 자체 조달로 설비를 증설하는 코어위브가 10.2%, 버티브가 6.0% 하락한 반면 17일에는 마이크론이 5.5%, AMD가 6.4%, 오라클이 5.2% 상승하며 반도체가 반등했다.

보안주 20% 안팎 급등 & 금융
최하위

같은 재료가 반대편에서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14일 소프트웨어 ETF가 5.0% 상승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초래할 손실 규모가 서한에서 언급되며 보안 예산 확대 기대가 형성돼 주간 기준 지스케일러가 20.0%, 클라우드스트라이크가 18.8%, 센티넬원이 17.4%, 옥타가 14.1%, 팔로알토가 13.4%, 포트넷이 10.6% 상승했고, 몽고DB가 8.6%, 워크데이가 7.3%, 데이터독이 6.7% 상승해 소프트웨어 전반으로 파급됐다. 헬스케어는 2.1% 상승해 업종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흑색종 백신의 5년 추적 결과를 공개한 모더나가 9.8% 상승했다. 금융은 2.4% 하락해 최하위였고, 14일뱅크오브아메리카 최고경영자가 이번 분기 투자은행 수수료의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를 예고한 뒤 골드만삭스가 7.6%, 뱅크오브아메리카가 7.2%, 모건스탠리가 5.1% 하락했으며, 분기 중 실적 전망을 하향한 JB헛트가 12.4%, 보잉이 6.4% 하락했다.

3년 만의 첫 인상에도 하락한 장기금리 & 반도체에서 보안으로 이동한 AI 예산 기대

점도표는 2027년 말도 4.1%; 30년 5.30%로 5% 하회 미충족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6일 정책금리를 3.75~4.00%로 25bp 인상했고 표결은 12대 0이었다. 직전 호 시점에 인상 확률이 70%였던 만큼 결정 자체는 이미 가격에 들어와 있었고, 새로 반영된 것은 함께 공개된 점도표다. 2026년 말 중간값 4.1%는 연내 1회 추가 인상을 가리키지만 2027년 말 중간값도 4.1%로 제시돼 금리의 종착 수준이 함께 드러났다. 16일 5.01%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10년 국채금리가 17일 4.95%로 반락한 것은 인상 경로의 상단이 가시화된 데 기인한다. 다만 직전 세 호에 걸쳐 확인 지점으로 제시한 30년 금리의 5% 하회는 5.30%로 여전히 미충족이다.

PCE 전망 3.7%로 상향 & 소매판매 컨트롤 그룹 1.4%

물가 전망은 인상 경로와 반대 방향으로 조정됐다. PCE 물가 전망이 3.7%, 근원이 3.4%로 6월 대비 상향돼 배럴당 100달러대의 유가가 전망 경로에 반영됐고, 11일 8월 CPI의 근원 전월 상승률도 0.3%로 예상치를 웃돌았다. 16일 8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2% 증가했고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컨트롤 그룹도 1.4% 증가해, 주유소 매출이 3.1% 증가하는 동안 나머지 소비가 유지됐다. 사우디 동서 송유관 가동 중단으로 일 500만 배럴의 대체 수출로가 막힌 상태여서 유가가 물가에 계상되는 경로는 10월 회의까지 유효하다.

지출 이연에 전공정 장비 낙폭 최대; 램리서치 9.7% 하락

인공지능 투자 논쟁은 12일 앤스로픽 최고경영자의 서한을 계기로 성격이 변화했다. 모델 성능 개선 속도를 낮추자는 제안에 오픈AI와 xAI가 동조하면서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지출의 규모가 아니라 집행 시점을 재평가했다. 낙폭이 전공정 장비에 집중돼 램리서치가 9.7%,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8.6%, KLA가 6.5% 하락한 반면 엔비디아는 0.5% 상승하고 마이크론은 보합에 머물렀다. 장비 발주는 CAPEX 집행 그 자체인 만큼 지출 이연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데 비해, 연산과 메모리는 이미 배치된 설비의 가동에서 매출이 발생한다. 자체 조달로 데이터센터를 증설하는 코어워브가 10.2%, 버티브가 6.0% 하락한 것도 같은 구분에 해당한다.

보안 ETF 13.2%로 업종 전반 동반 상승

반대편에서는 보안 예산의 총량이 늘어난다는 기대가 부각됐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초래할 손실 규모가 서한에서 언급되며 지스케일러가 20.0%, 클라우드스트라이크가 18.8%, 센티넬원이 17.4% 상승했고 보안 ETF도 13.2% 상승해 업종 전반이 동반 상승했다. 14일 클라우드스트라이크와 팔로알토네트웍스의 콜 거래량이 30일 평균의 4.1배와 3.7배로 집계돼 옵션 시장에서도 동일한 방향이 관측된다. 다만 같은 기간 클라우드스트라이크의 FY1 주당순이익 컨센서스는 1.25달러, 팔로알토네트웍스의 FY2 컨센서스는 4.88달러로 변화가 없어, 주가 상승분은 이익 추정이 아니라 배수 확장에 기인한다. 17일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3.1% 반등하는 동안에도 보안주가 되돌려지지 않은 점이 지속 여부를 가리는 첫 근거다.

점검 항목은 송유관 재가동과 8월 자본재 주문

시장이 주목한 변수는 인공지능 관련 지출을 어떤 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방향성이 제한적인 국면에서는 지출 이연에 직접 노출되는 전공정 장비와 외부 조달로 설비를 증설하는 인프라보다 이미 배치된 설비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로직/가속기/메모리, 그리고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보안소프트웨어가 유리하다. 향후 점검 항목은 사우디 동서 송유관의 재가동 여부와 25일 8월 내구재 주문의 항공기 제외 자본재 항목이며, 자본재 주문이 둔화되면 서한이 촉발한 지출 이연이 지표로 확인되고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로 반락하면 10월 추가 인상 논쟁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

차주 시장 이벤트: 9월 PMI 속보치와 연준 위원 발언 & 8월 내구재 주문

9/23(수): 9월 PMI 속보치 & 연준 위원 발언

수요일 9월 제조업·서비스업 PMI 속보치가 공개된다. 8월 소매판매가 예상을 상회한 뒤여서 서비스업 지표가 확장 국면을 유지하면 연내 추가 인상 전망이 강화될 예정이며, 세부 항목 가운데 지불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대 유가의 판가 전가 정도를 가장 이르게 보여준다. 회의 직후 발언 제한이 해제된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이어져, 점도표에서 두 차례 인상을 상정한 참가자의 논거가 드러나면 17일 반락한 장기금리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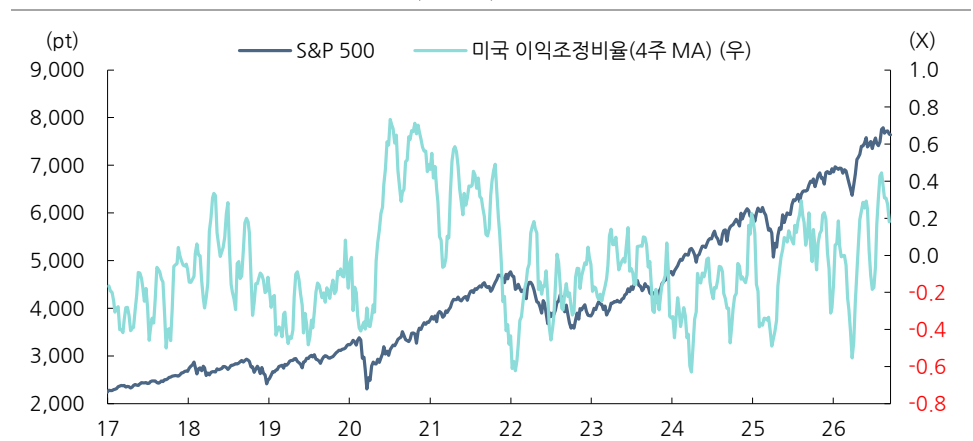
9/24(목): 2분기 GDP 확정치 & 코스트코 실적

목요일 2분기 국내총생산 확정치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된다. 17일 청구 건수가 19.6만 건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만큼 고용이 견조한 상태에서 물가 전망만 상향된 조합이 유지되는지가 판가름될 예정이다. 장 마감 후에는 코스트코가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공개하며, 휘발유 가격 상승기의 회원제 소매 객수와 마진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 유가 전가를 실적으로 검증하는 첫 소매 사례인 만큼 필수소비재 전반의 방향을 정한다.

9/25(금): 8월 내구재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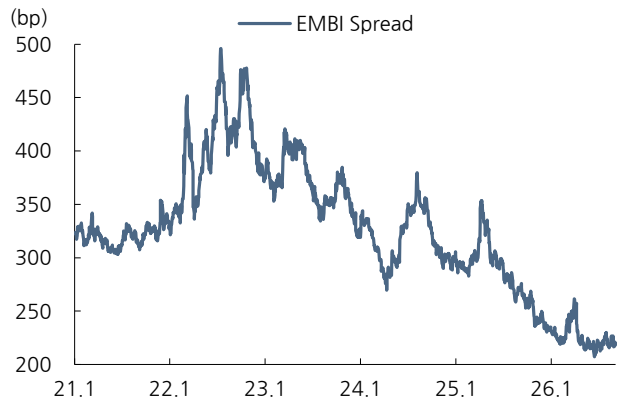
금요일 8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된다.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주문은 기업 설비투자의 선행 지표이며, 인공지능 속도 조절 논쟁이 촉발한 지출 지연이 실제 발주에 나타나는지를 처음 보여주는 수치다. 주문이 둔화되면 금주 하락한 전공정 장비의 조정이 연장될 수 있고, 유지되면 서한에 따른 조정이 기대의 조정에 그쳤다는 근거가 된다.

그림 10. S&P 500 주가 추이 및 이익조정비율(4주 M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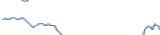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EMBI Spread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표 1. MSCI AC World 업종별 주요 지표

업종	업종별 EPS 변화율 (%)				컨센서스 추이 (%)	업종별 수익률 (%)				지수 추이 (%)
	1W	1M	3M	YTD		1W	1M	3M	YTD	
글로벌(M. AC World)	1.2	3.7	10.6	29.5		-0.1	-0.5	2.6	12.1	
에너지	1.4	0.7	3.3	46.2		-0.9	0.5	16.7	35.5	
소재	1.0	2.4	-1.0	21.5		-2.0	-3.2	4.2	11.0	
자본재	2.1	2.7	13.1	21.7		-0.9	-4.3	-6.6	10.9	
상업/전문서비스	0.5	4.3	7.5	9.3		1.2	-2.6	12.7	-0.5	
운송	1.8	3.9	10.7	10.0		-1.2	-4.7	-0.8	7.8	
자동차/부품	1.7	4.1	4.6	0.1		-0.2	1.0	0.0	-13.6	
내구소비재/의류	1.7	1.7	6.7	3.7		-0.2	-5.8	-4.0	-12.1	
소비자 서비스	2.4	3.7	8.2	8.0		-1.8	-9.1	-2.7	-10.1	
소매	1.6	2.4	12.3	15.9		-0.6	-5.9	3.4	-2.1	
식품/필수품 소매	0.6	1.5	5.1	5.9		0.2	-0.9	-3.8	0.3	
식품/음료/담배	0.9	2.1	4.1	5.4		-0.2	-2.9	-0.4	6.1	
가정용품/개인용품	2.0	2.5	4.3	1.3		1.0	-1.1	0.0	-0.4	
헬스케어 장비/서비스	1.0	2.1	5.6	8.0		-0.4	-3.7	0.6	-7.7	
제약/생명공학/생명과학	1.0	4.2	6.3	4.6		2.4	-2.7	7.5	10.2	
은행	1.2	1.0	7.0	13.8		-1.1	1.4	5.8	15.0	
기타 금융	1.5	1.8	6.5	11.7		-1.9	-2.6	5.4	-0.4	
보험	1.3	1.9	5.6	9.1		1.1	1.5	7.0	7.7	
소프트웨어/서비스	-1.1	2.6	3.9	5.6		2.7	3.2	31.2	-1.4	
기술 하드웨어/장비	0.9	9.6	24.6	105.1		0.3	4.0	3.6	40.8	
반도체/장비	1.8	7.8	25.4	124.3		-1.3	0.3	-8.5	45.1	
통신서비스	2.2	2.2	-1.2	3.9		-1.8	1.5	3.1	5.5	
미디어/엔터	1.2	-0.3	6.8	18.2		3.6	4.7	6.3	-0.2	
유틸리티	0.9	1.3	3.9	5.1		-1.2	-3.0	-6.0	1.0	
부동산	1.0	-4.5	15.0	-4.6		-0.8	-5.1	-4.4	6.9	

자료: LSE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표 2. S&P500 업종별 주요 지표

업종	업종별 EPS 변화율 (%)				컨센서스 추이 (%)	업종별 수익률 (%)				지수 추이 (%)
	1W	1M	3M	YTD		1W	1M	3M	YTD	
미국(S&P500)	0.1	2.6	9.3	28.2		0.6	0.0	3.8	11.6	
에너지	1.4	0.7	6.6	56.7		-1.3	0.4	18.5	42.1	
소재	-1.3	-0.5	-0.7	20.8		-0.9	-3.9	-2.5	10.0	
자본재	0.0	1.3	7.1	15.9		-1.2	-6.3	-11.3	10.7	
상업/전문서비스	0.0	0.8	2.4	5.7		0.7	-4.3	11.0	-5.6	
운송	-0.4	1.0	9.5	13.5		-2.0	-7.0	-5.3	8.5	
자동차/부품	0.0	0.9	4.8	14.6		-1.7	2.8	-4.2	-18.4	
내구소비재/의류	-1.4	-0.4	1.6	1.2		0.4	-8.1	-10.2	-16.0	
소비자 서비스	0.0	1.2	4.0	8.3		-1.5	-10.0	-5.0	-8.0	
소매	0.0	-1.0	12.8	27.2		-2.1	-6.0	2.9	1.2	
식품/필수품 소매	0.0	1.1	3.9	8.1		0.1	-1.3	-5.0	1.6	
식품/음료/담배	0.0	0.5	1.6	4.4		0.2	-2.3	2.6	12.8	
가정용품/개인용품	0.0	0.6	0.8	0.9		1.6	-0.3	-1.9	2.7	
헬스케어 장비/서비스	-0.1	0.8	4.7	10.0		0.3	-2.4	1.8	-4.4	
제약/생명공학/생명과학	0.0	2.3	6.6	7.3		1.6	-3.0	10.5	15.7	
은행	0.0	0.6	6.7	16.1		-3.4	-1.6	-0.2	6.0	
기타 금융	0.1	0.9	6.1	12.0		-1.3	-1.9	6.3	-0.4	
보험	0.0	0.0	2.5	6.6		0.5	-2.2	5.7	3.2	
소프트웨어/서비스	0.0	1.5	5.5	14.2		1.5	2.6	30.8	-1.9	
기술 하드웨어/장비	0.6	2.8	9.8	40.7		0.5	4.5	7.6	33.5	
반도체/장비	0.1	9.8	22.7	98.2		-2.9	-2.6	-8.1	31.2	
통신서비스	0.0	0.6	2.2	14.3		-0.8	-0.8	7.9	2.9	
미디어/엔터	0.1	-0.8	8.7	22.3		3.0	4.9	5.2	3.3	
유틸리티	0.0	0.7	2.0	6.4		-2.8	-5.8	-10.5	-3.8	

자료: LSE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3. 채권

매파적 FOMC 및 유가흐름 소화,
10년물 4년여 만 4.6%선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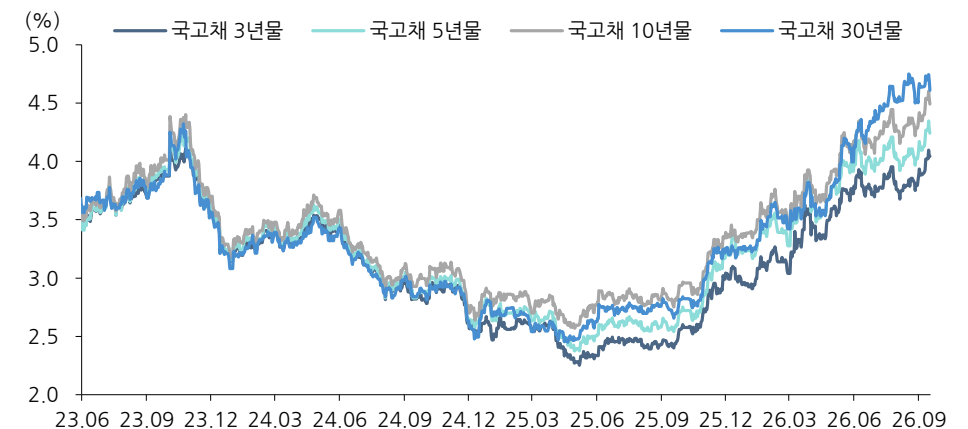
FOMC 인상과 유가 변동, 국내외 커브 플래트닝

금주 국내 채권시장은 주 초반의 약세를 주 후반 되돌리며 혼조 마감했다. 주 초반 미 국채 10년물의 5% 돌파와 사우디 송유관 폐쇄발 유가 상승에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10년물이 4년여 만에 4.6%선에 도달했다. 이후 유가가 반락하고 외국인인 3년 국채선물을 대거 순매수하며 저가매수가 유입, 재정경제부의 1조 5천억원 규모 경과물 바이백까지 더해져 전 구간이 강세로 돌아섰다. 주 후반 매파적 FOMC 여파에 장 초반 약세가 우세했으나,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장안정조치 의지를 밝히며 장 막판 강세로 전환했다. 주간 수익률 곡선은 전주대비 불-플래트닝을 시현했다.

FOMC 25bp 인상과 매파 점도표
10년물 5%, 2년물 4.7%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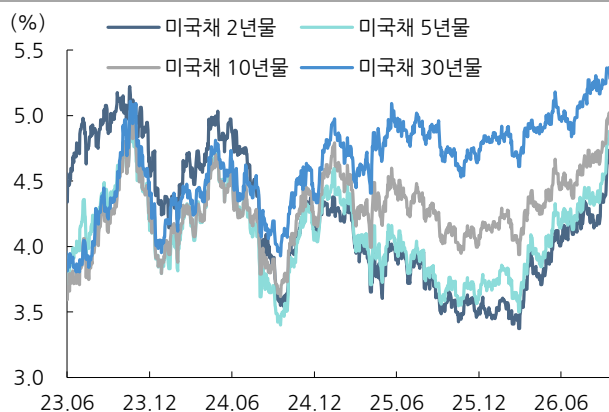
금주 미국 채권시장은 유가와 통화정책 재료가 교차하며 장단기 금리의 방향이 엇갈렸다. 주 초반 사우디 및 리비아의 원유 공급 차질에 유가가 4개월 만의 최고치로 뛰자, 10년물이 5%선을 상회하며 장중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FOMC가 2023년 7월 이후 3년 만의 25bp 인상을 단행하고 점도표로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하자, 2년물이 4.70%선을 상회 돌파했다. 다만 이후 FOMC 불확실성 해소되고 영국 중앙은행의 장기물 길트 매각 폐지와 유가 하락에 강세로 돌아섰다. 주간 수익률 곡선은 전주대비 불-플래트닝을 시현했다.

그림 1. 주요 만기물별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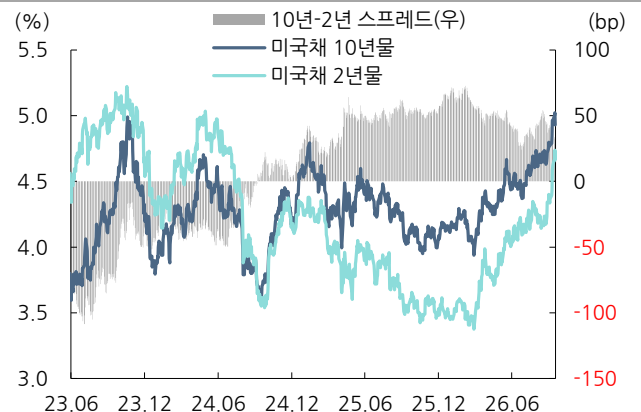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상생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 국채 주요 만기물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생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미 국채 장단기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생인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채권시장 긴축 전환 소화와 시흥의 거래 금리 상단 안정 여부 확인

차주 전망: 긴축 전환 소화와 연휴를 앞둔 관망 국면

9월 4주차 국내 채권시장은 연준의 긴축 전환을 소화하며 금리 상단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주간이 되겠다. 이번 FOMC는 보험성 인상이 아니라 완화 사이클의 종료를 확인한 회의였고, 점도표가 연내 추가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를 가리키고 있기에 추가 상승 여지는 열려 있다. 다만 연준이 물가 안정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이상, 단기적으로는 긴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단을 안정시키는 조치로 해석할 여지 또한 상존한다. 추석 연휴로 거래일이 사흘에 그치고 주요 대외 일정이 휴장 기간에 몰려 있기에, 적극적인 방향성 베팅보다는 21일 5년물 입찰의 소화 강도를 확인하며 포지션을 정리하는 흐름이 우세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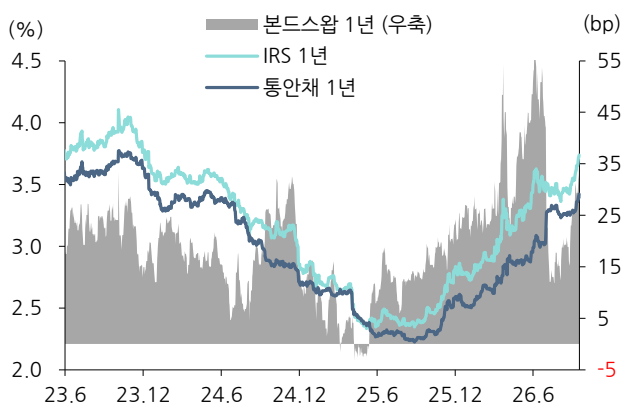
① 통화정책 여건

9/16 FOMC가 기준금리를 3.75~4.00%로 25bp 올리며 2023년 7월 이후 첫 인상에 나섰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고 점도표는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시사해 18명 중 16명이 추가 인상에 점을 찍었다. 이로써 한미 금리차는 상단 기준 1.00%p로 벌어졌다. 총재가 8월 연속 인상의 근거로 환율과 한미 금리차를 든 만큼 10/22 금통위가 짊어질 부담은 커졌다. 차주 국내에서는 9/22 금통위 금융안정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이 공표되는데, 총재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를 인상 근거로 반복해 온 만큼 보고서의 진단 강도가 10월 인상 기대를 재조정하는 재료가 되겠다.

② 거시경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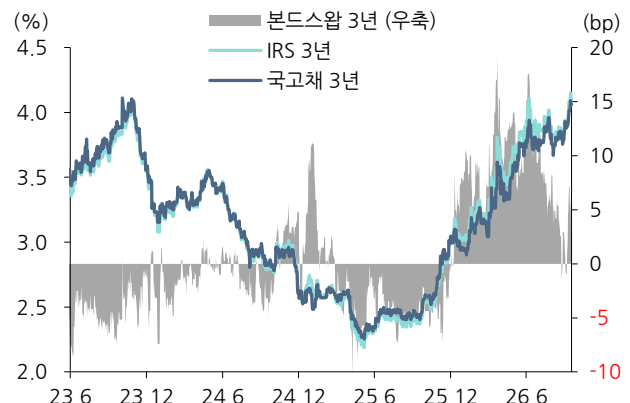
차주 국내 지표는 9/21 관세청 9월 1~20일 수출입과 9/23 9월 소비자동향조사 둘이다. 9월 1~10일 수출이 전년동기비 82.6% 늘고 반도체가 270% 넘게 급증한 만큼, 20일까지 실적에서 모멘텀이 유지되는지가 관건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8월 104.5로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 9월에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고 국고채 3년 금리마저 4%를 웃돌아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 함께 발표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8월까지 2.7%로 석 달째 같은 수준인데, 유가 급등이 이를 밀어 올리는지가 지수 자체보다 중요하다. 수출은 견조한데 심리가 꺾이고 기대인플레이션까지 튼는 조합이면 10월 금통위의 선택지는 좁아지겠다.

그림 4. 통안채 및 IRS 1년 금리, 본드스왑 스프레드 추이



자료: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국고채 및 IRS 3년 금리, 본드스왑 스프레드 추이



자료: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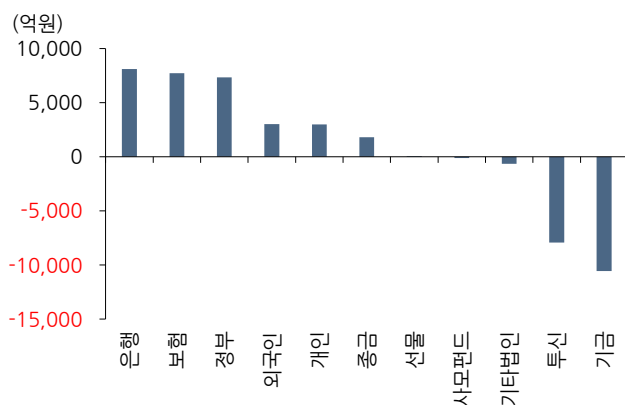
③ 국내외 이벤트

차주는 추석 연휴로 9/24~25 휴장해 거래일이 사흘에 그친다. 국내 시장은 금주 FOMC의 여파가 이어지겠다. 워시 의장이 금융 여건을 제약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히자 미 국채 2년물은 4.70%를 넘어 2024년 7월 이후 최고로 올라섰고 10년물도 5%를 재돌파했다. 차주에는 FOMC 직전 동결 지지를 시사해 완화된 스탠스를 보인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세 차례 연설을 하고,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9월 속보에서 4.6%까지 뚫 뒤 9/25 확정치로 확인된다. 수급 쪽에서는 미국이 9/23~25 2년·5년·7년물 입찰을 연달아 치르는데, 10년물이 5%에 걸린 국면이라 소화 결과가 미 금리 방향을 가른다. 이들 일정이 대부분 국내 휴장 기간에 몰려 있어, 연휴 뒤 한 번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휴장을 앞둔 포지션 축소가 나타날 수 있다.

④ 수급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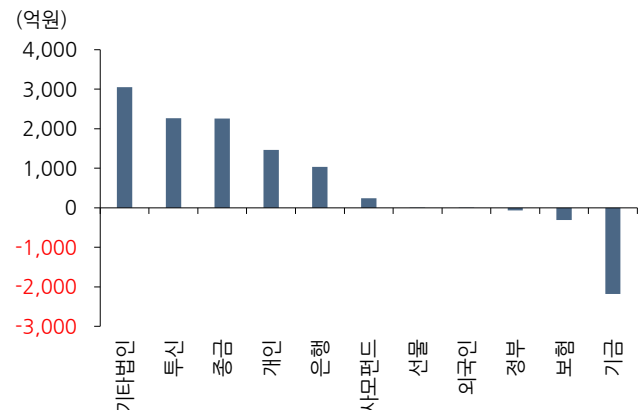
금주 수급은 매수 주체가 갈렸다. 은행과 보험이 각각 0.8조원씩 순매수한 반면 기금이 1.1조원, 투신이 0.8조원을 순매도했다. 선물에서는 외국인인 전주 3년물 2.4만계약 순매도에서 소폭 순매수로 돌아섰고 10년물 순매도도 1.2만계약에서 0.5만계약으로 줄어, 매도 압력은 일단 진정됐다. 차주 국고채 공급은 9/21 5년물 3.0조원 한 건으로 9월 마지막 입찰이다. 크레딧 만기 3.8조원이 대기하나 절반 이상이 휴장 기간에 몰려 있어 실제 채투자자는 연휴 이후로 밀린다. 거래일이 사흘뿐이라 5년물 입찰 소화 결과가 주간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겠다.

그림 6. 투자자별 국채 주간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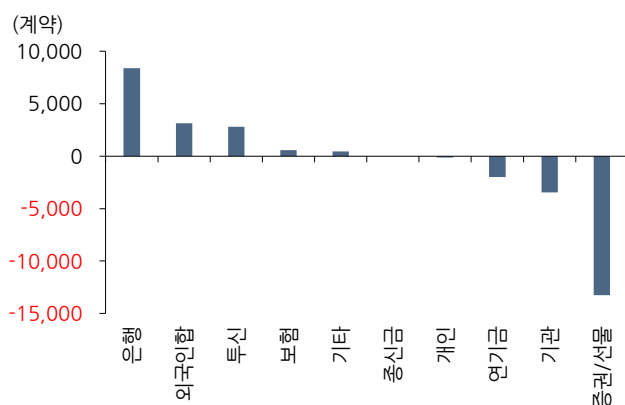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투자자별 회사채 주간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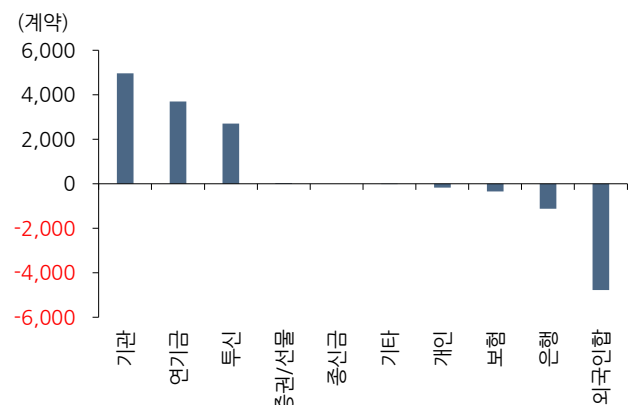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투자자별 3년 국채선물 주간 순매수



자료: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투자자별 10년 국채선물 주간 순매수



자료: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4. 부동산

강북 중위가격 10억 돌파, 강남은 뒷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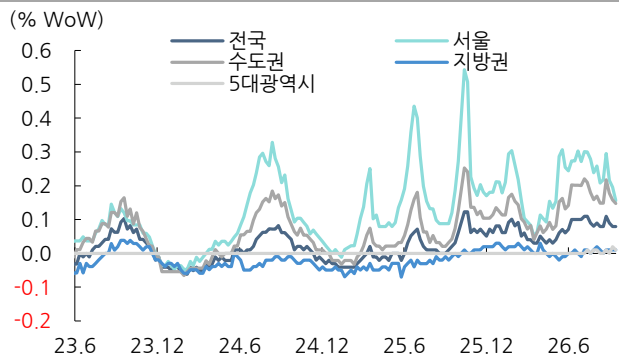
중저가 쏠림 심화,
전세난은 수도권으로 확산

세제개편 효과가 본격화되며 시장의 무게중심이 중저가로 옮겨가고 있다.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3구는 압구정, 대치, 반포 등 고가 지역의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대출 규제 속 실수요가 15억원 이하 단지로 몰리는 흐름이다. 성북구는 연초 이후 14% 올랐고 그 외 연초 대비 10% 넘게 뛴 자치구도 8곳에 달한다. 강북 14개구의 매매 중위가격은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 평균 전셋값이 7억원을 돌파하였다. 반면, 공급측 매물은 한 달 새 6% 가까이 줄면서, 임차 수요가 용인, 인천 등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모습이다.

서울 +0.16%, 수원 영통구 +0.61%
전국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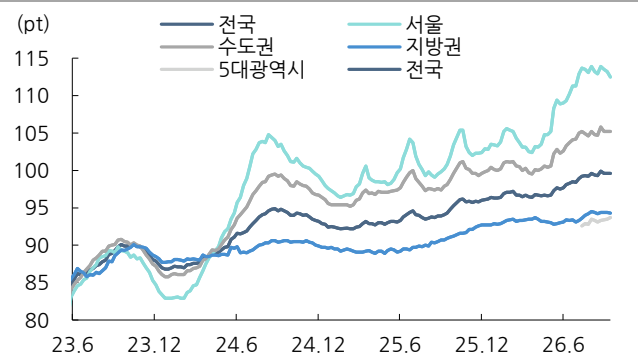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0.08%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수도권(+0.15%)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지방권(0.00%)은 보합에 그쳤다. 세종시는 -0.18%로 전주(-0.02%) 대비 낙폭을 키우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서울(+0.16%)은 중랑구(+0.51%), 도봉구(+0.47%), 서대문구(+0.47%) 등 강북 중저가 지역이 상승을 이끈 반면, 강남구(-0.36%)와 서초구(-0.26%)가 6주 연속, 송파구(-0.12%)가 2주 연속 하락하며 강남3구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경기(+0.18%)에서는 영통구(+0.61%)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동안구(+0.45%), 기흥구(+0.42%), 권선구(+0.42%)가 뒤를 이었고, 인천(+0.02%)은 보합권 흐름을 이어갔다.

그림 1.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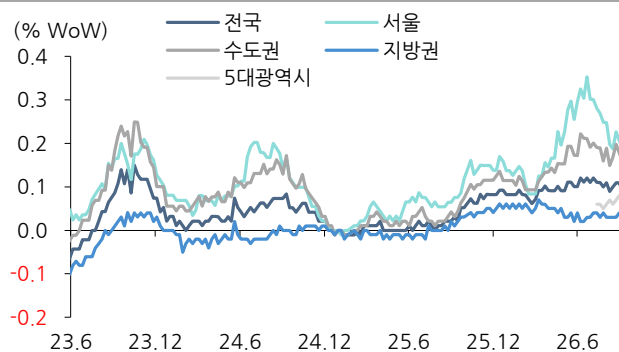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상승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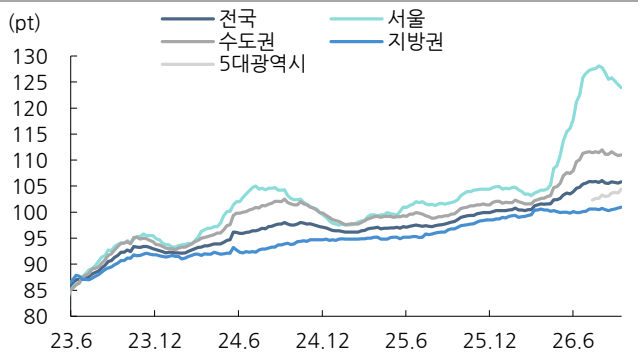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상승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등락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상승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 추이



자료: 한국부동산원, 상승인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신열, 김경태, 최예찬, 강혜성)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